

신안 예술의 섬 프로젝트 거장들 작품 속속 설치

1섬1정원, 1도 1뮤지엄 사업 착착 도초도에 올라퍼 '숨결의 지구' 덴마크·영국·미국·일본 작가 작품 비금·안좌·자은·압해도서 만나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 대지의 미술관에 세계의 거장 덴마크 올라퍼 엘리아슨의 '숨결의 지구' 작품이 지난달에 공개돼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위한 기반 사업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명 작가들도 신안이 예술의 섬(Island of art)이라며 감탄하고 있다.

신안군은 급속도로 변해가는 지구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천혜의 자연자원 활용 1섬 1정원과 1도 1뮤지엄, 문화, 관광산업,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보유한 자산을 최대한 이용해 당초 세계 시장을 겨냥한 세계 속 국가 정원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다.

신안군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UN세계관광기구로부터 반월 박지도 퍼플섬 최 우수마을 선정, 신안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특히 지난달 '리브코 어워드'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의 최고상인 금상을 받는 등 지금까지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들이 국제적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관광객들도 "신안에 가면 자은도 해변에서 파도 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피아노 선율과 1년 365일 그윽한 꽃향기가 가득하다"며 "꽃과 예술이 있는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낮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걸은 결과 이제는 세계의 유명작가들이 직접 신안을 보고 느끼며 "세계 속 예술의 섬"이라는 평가와 함께 앞으로 지속적인 작품 공개의지를 밝히는 등 신안 문화, 예술 플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

어 신안의 꿈이 현실로 다가옴을 예시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세계적인 유명작가 덴마크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의 신작 "숨결의 지구"가 신안 도초도 수국정원 대지의 미술관에서 공개되어 현재 국내외 관광객들로부터 사랑을 이루고 있다.

숨결의 지구는 동그런 원형의 공간에서 빛에 따라 다양한 입체감으로 자연의 생명력과 살아 숨 쉬는 자연의 영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올라퍼 엘리아슨 작가는 "숨결의 지구" 신작을 공개한 날 참석을 위해 덴마크에서 도초도 수국정원 현장까지 편도 약 20여 시간 이상의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신안군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 있는 예술의 섬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어 앞으로 희망이 보인다라며 감탄했다.

또 김환기 화가의 고향 안좌도 신촌 저수지 물위

에 떠있는 미술관(플로팅 뮤지엄)은 일본 야나기 유키노리 작가의 작품 7개의 사각 상자모양 큐브가 환상적으로 수면위에 곧 공개될 예정이다.

여기에 철 구조물작가로 세계 유명한 영국 안토니오키 작품이 해변 경치가 아름다운 비금도 바다 속에 설치돼 밀물과 썰물 등 바다의 상태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비한 조형물과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조각 거장 안토니오키 역시 2022년에 비금도 현장을 방문해 비금도의 경관에 도취해 바닷가에 설치할 작품을 구상, 작업 중이다.

또 삼성미술관 리움을 설계한 스위스 영혼의 작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는 자은도에 세계적인 공립미술관 '인피니토 뮤지엄' 건립에 참여해 때 묻지 않은 섬, 바다와 어우러지는 건축물이라는 콘셉트로 잡았다.

이 외에도 관광객의 접근이 쉬운 압해도에는 세

계 작가들의 그래피트를 볼 수 있다.

압해읍사무소 건물 벽에는 스페인 출신 세계적인 킬크(Dulk)의 동물과 자연을 포함한 그래피티 작품을 볼 수 있고, 신안군 1만원 주택 팸리스파크 2개동에는 미국 존원(jonOne)작가의 대형 작품이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르투갈 빌스(Vhils)작가의 대형 작품 역시 압해농협 벽면에서 그려져 있다.

세계 유명 작가들은 처음에는 대한민국 작은 나라 작은 섬에 무슨 작품을 하겠냐며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하지만 신안을 직접 방문해 넓은 바다와 잘 어우러진 크고 작은 많은 신비스러운 섬들의 숲 경관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1섬1정원, 1도1뮤지엄 등 군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간들을 보고 마음이 확 달라졌다.

작가들은 신안 아름다운 섬들에서 연중 펼쳐지는 꽃 축제와 군이 추진하는 사업의 면모를 보고 예술적인 섬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작품 설치 의지를 다졌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국제적인 작가들 역시 관심을 가져 작품활동의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세계 유명작가들의 신안 방문과 잇따른 작품설치 전시된 것은 영광이며, 국내는 물론 세계 관광객들이 거장들의 작품을 비롯해 예술의 섬을 찾는 신안관광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기후변화와 인구소멸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복잡하게 얽힌 위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깜짝 놀랄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 이 탄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1섬1정원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으며 1도 1뮤지엄 프로젝트는 현재 박물관 11개소, 미술관 13개소, 전시관 3개소 등 27곳 중 완료 16개소, 추진 1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이상선 기자 sllse@kwangju.co.kr

진도군 특산물 대파 활용 음식 2종 개발 시식회



진도 대파 즉석 소갈비.

진도군이 특산물인 대파를 활용해 개발한 음식 2종에 대한 시식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진도 대파는 사면이 바다인 진도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 대가 단단하고 미네랄을 많이 함유돼 있으며 진한 향과 달콤한 것이 특징이다.

시식회에서 새롭게 선보인 음식은 '진도 대파 즉석 소갈비'와 '진도 대파 삼합' 등 두 가지다.

진도 대파 삼합은 민물장어와 차돌박이를 대파 김치에 싸 먹을 수 있도록 했다.

진도 대파를 활용해 개발한 다양한 소스도 선보였다.

군은 이번에 개발된 두 가지 음식의 조리법을 공개해 필요한 음식점에 무료 제공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진도에서 나오는 대파와 바다장어, 전복, 표고버섯 등 특산물을 활용해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소비를 촉진해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

해남군 정책 경진대회

'군민광장 음악분수' 대상

해남군은 올해를 빛낸 성과를 공유하는 '2024년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에서 군민광장 음악분수 조성사업이 대상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6일 열린 경진대회는 올해 우수하게 추진된 군정시책과 해남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형 ESG 실천사례의 추진내용을 공유하고, 내년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시책과 ESG 실천사례는 지난 11월부터 직원-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총 7건을 선정, 정책페스티벌 경진대회 본선에서 2차 심사를 가졌다.

경진대회 결과 올해의 대상을 받은 시책은 문화예술과 군민친화형 친수공간 조성이 차지했다. 해남군민광장의 기존 분수대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친수공간에는 65m 길이의 바다분수가 마련돼 역대 최대의 폭염이 몰아친 올여름 군민들의 시원한 휴식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최우수상은 우슬체육공원 인근 약 1km구간에 조성된 우슬맨발산책로가 선정됐다. 이어 우수시책으로는 끈질긴 노력으로 벼밭구 피해의 농업재해 인정을 이끌어낸 농정시책과 부산 해운대구에서 펼쳐진 김치축제, 해남 자원순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자원순환복합센터 운영 등 3건이 선정됐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종량제 봉투가격

새해부터 5L 80원→100원

영광군이 내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을 인상한다. 영광군의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17년 만이다.

군은 물가 상승 와중에도 종량제 가격을 동결해 왔으나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불가피하게 인상을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인상 가격은 종량제 봉투는 ▲5L 80원→100원 ▲10L 160원→200원 ▲20L 300원→400원 ▲50L 750원→1000원이다. 재사용 봉투의 경우 ▲10L 100원→200원 ▲20L 200원→400원 ▲30L 300원→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디자인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정보를 담은 디자인으로 바뀐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가격 인상은 지속 가능한 환경 관리 및 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완도군 - 공무원노조 '노사문화 우수' 대통령 표창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

완도군과 공무원노동조합이 '2024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제'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부문 1위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 인증'은 정부가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드는 모범적인 행정기관을 선정해 노사문화를 타 기관에 확산하고자 2010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과 공무원노조는 군민과 함께 상생·협력하는 노사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착을 위해 힘써왔다고 전했다.

지역 특산품인 전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역민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복 홍보와 판촉 활동',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완도 사랑의 산타대작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했다.

도시지역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완도군-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원포인트 단체협약을 통해 직원 관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노사문화 우수 행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있어 노조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상생·

협력하는 노사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